

國際水準으로의 成熟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篇＝

우리나라 原子力發電 A/E分野의 技術自立을 先導해 온 韓國電力技術(株)은, 지난해에 美國機械學會(ASME)로부터 보일러 및 壓力容器코드인 Section III에 대한 品質保證證書(ASME N-Certificate)를 取得한 것을 비롯하여 尖端技術의 集合體인 設計自動化시스템(CAD System) 및 大型電算機(CYBER 170-815)의 導入, 原電 11, 12號機 設計 早期着手 分遂行 및 原子力發電所 設計標準化 研究遂行, 社內 繼續教育制度(C. E. P; Continuing Education Program)의 定着, 아세안地域 發電 및 플랜트市場調查 등 活潑한 對內外 活動을 보여 주었다. 이는 그동안 韓國電力技術(株)가 指向해 온 “技術自立을 통한 國際水準의 A/E社로의 成長”이라는 經營理念을 實現하기 위한 不斷한 努力의 結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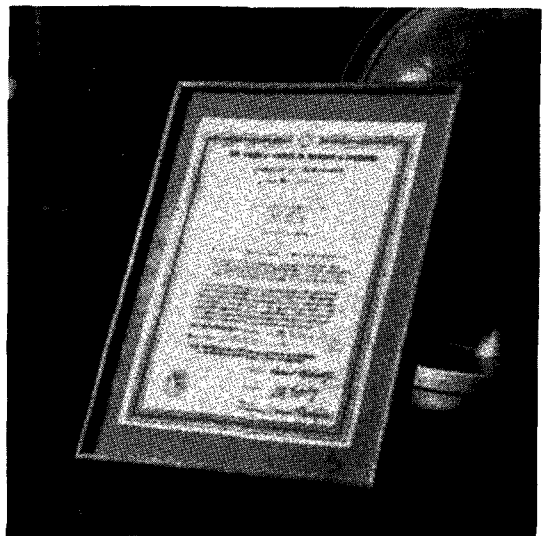
韓國電力技術(株)은 지난해의 成長內實化 基盤構築에 이어 創立 10周年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高級人力 養成確保, 業務管理, 能率提高, 先進技術 導入 擴大, 對外 競爭體制構築, 海外事業擴大 本格化 등을 經營方針으로 設定하여 技術力量의 高度化에 拍車를 加할 計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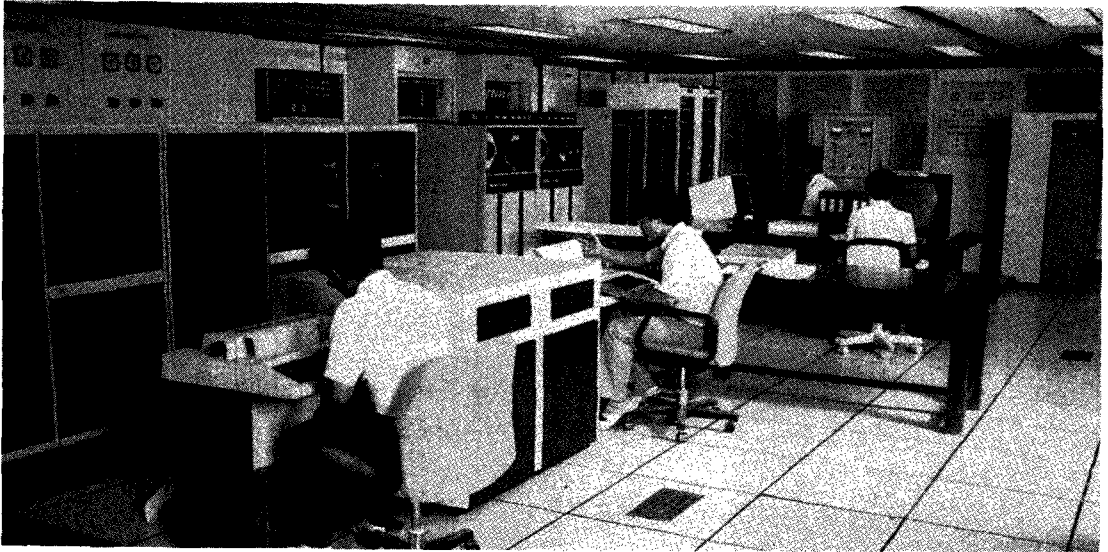
첫째 高級人力 養成確保는, 人力이 絶對적으로 重要한 資産이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會社로서는 持續的 成長의 關鍵이라 할 수 있는 바, 韓國電力技術(株)은 技術自立을 目標로 人力의 專門化를 위한 長期 國內外訓練計劃을 樹立·施行하여 目的指向의 人力養成體系를 確立하고 急速한 技術革新에 對處하려 한다.

國內 最初로 實施한 社內 繼續教育制度의 一環인

碩士待遇課程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職員들의 積極的인 參與속에 進行하여 修了者를 輩出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擴大改編하여 博士課程開設도 準備할 것이다. 또한 職員의 專門性培養을 위한 經歷開發制度(Career Development Program)는 이의 施行을 위한 前提事業으로 人事情報시스템을 開發하고 經歷累進經路(Career Path)를 設定함으로써 體系的이고 效率的인 制度로 定着시킬 計劃이다. 특히, 脆弱核心技術의 習得을 위하여 國內外的 有經驗 高級技術人力을 誘致, 活用하여 技術自立 早期達成에 蹉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두번째의 業務管理 能率提高를 보면, 高度의 頭腦集約産業인 技術用役業을 遂行하는 데는 設計自





動化시스템을 비롯한 業務의 電算基盤擴充이 必須의 이므로 지난해에 導入한 設計自動化시스템 및 大型 電算機의 活用도를 倍加하며, 또한 各種의 技術業務用 소프트웨어의 開發에 注力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業務電算化에 副應하여 事務自動化(OA)의 基盤을 造成하고 效率的인 事業管理를 위하여 事業管理프로그램의 開發 및 電算管理시스템을 運用할 계획이다. 經營管理의 效率化가 全般的인 生産性向上에 影響을 미치는 重要 要素임을 勘案하여 會計, 豫算, 決算, 經營分析 등의 電算化도 積極 推進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先進技術을 導入, 擴大키 위하여 脆弱 核心技術을 體系的으로 確保하고 自體 技術開發을 더욱 促進할 계획이다.

核心技術傳受를 優先으로 한 原子力後續機(#11, 12) 主契約業務의 圓滑한 遂行과 原子力發電所 設計標準化事業은 韓國電力技術(株)의 二大 當面課題이며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技術이나 know-how의 選別的이고 體系的인 導入 및 消化를 促進하고 이러한 導入技術과 關聯用役遂行을 통해 蓄積된 經驗技術의 調和를 통해 國際水準의 A/E社로의 跳躍을 圖謀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對外 競爭體制의 構築으로 엔지니어링分

野 市場競爭力의 核인 技術能力의 向上에 注力하고 또한 事業管理技法活用, 效率的인 組織運營, 經費節減 등으로 價格競爭力 優位基盤을 構築하여 對外競爭體制를 着實히 다져갈 계획이며 지난해의 N-Certificate取得經驗을 바탕으로 發電所建設의 安全性 및 信賴性を 確保하기 위하여 顧客에 대한 品質保證活動을 強化함으로써 質的으로 向上된 서비스 提供에 努力할 것이다.

다섯째 海外事業擴大 本格化는 積極的인 海外市場開拓을 위해 主要 進出對象國과 協力體制를 強化하며 금년에 開設豫定인 美州 및 東南亞地域 海外事務所 및 關聯地域의 有力 에이전트活用을 통하여 弘報 및 受注活動을 強化하리라 보이며 좋은 結實이 期待되고 있다.

이와 같은 年次別 經營方針의 積極的인 遂行을 통하여 韓國電力技術(株)이 對內外的 力量을 쌓아 나가므로써 電力開發利用業務의 效率化는 물론 關聯業界에 圓滑한 技術傳播를 達成할 것이며, 이러한 成熟過程을 거쳐 韓國電力그룹의 一員인 同社가 우리나라 原子力 A/E分野를 이끌어 나감은 물론 技術自立을 통하여 發電플랜트輸出의 先導企業이 됨으로써 “技術立國”에 큰 힘이 되리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